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8. 27.(화) 총 5매(본문2, 참고3)	
담당 부서	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 자	·과장 이창기, 사무관 이용관 ·☎ (044) 201-4081
보 도 일 시		2019년 8월 2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정부-지자체-공공기관 힘 모아 자율주행 협력에 '속도낸다'

- 국토부, 28일 9개 지자체·9개 공공기관 간 자율주행협력 협의체 발족
- 자율주행서비스 확대 논의 등 실증·사업화 지속 지원키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28일(수)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*, 공공기관**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「공공사업 협의체(이하 협의체)」를 발족하고 「키오프세미나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서울, 대전, 대구, 광주, 울산, 세종, 경기, 제주, 전북 (9개 지자체)

** 도로공사, 교통연구원, 교통안전공단, 한국ITS협회, 국토연구원, 도로교통공단, 인터넷진흥원, 전자부품연구원, 건설기술연구원 (9개 공공기관)

○ 이번 협의체 발족은 '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*' 활동의 일환으로,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** 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다.

* 자동차·통신·인프라·지도 업계를 포함한 산·학·연 25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율협력주행 표준·제도 등 논의 중('18.3월 발족)



** 차량간, 차량-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

□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.

- 최근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셔틀,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*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.

*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'19.4월 제정, '20.5월 시행)

- 국토부와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국에 다양하면서도 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-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여,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·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- 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, 자율주행 전용시험장,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키포프세미나도 개최된다.
-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“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”이라며,
 - “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,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.”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윤지태씨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 기술과 이용관 사무관(☎ 044-201-40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

참고 1

발족식 및 세미나 행사 개요

□ 행사개요

- 일시 : '19. 8. 28(수), 14:00~17:30
- 장소 : 서울 더케이호텔 3층, 크리스탈볼룸
- 참석 : 국토교통부(자동차관리관), 지자체(서울·제주·울산·광주·경기·대전·세종·대구), 공공기관, 협의회 참여기관 등 250여명

□ 세부일정

구분	시간	프로그램
공식행사 (‘30)	13:30~14:00	● 참가등록
	14:00~14:05	● 개회선언
	14:05~14:10	● 내빈소개
	14:10~14:15	● 개회사 (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)
	14:15~14:25	● 협의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(협의회 사무국)
	14:25~14:30	● 기념촬영
휴식	14:30~14:40	● 무대정리
세미나 (‘170)	14:40~14:50	● 공공사업 협업체 및 자율주행 상용화 법률(국토교통부)
	14:50~15:25	●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및 스마트시티 · 판교제로시티 및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추진현황(경기도) ·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-City 추진현황(자동차안전연구원)
	15:25~16:55	● 지자체 및 고속도로 C-ITS 실증사업 · 지자체 C-ITS 실증사업 추진현황(서울, 제주, 울산, 광주) · 고속도로 C-ITS 실증사업 추진현황(한국도로공사)
	16:55~17:30	● 보안인증체계 및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· V2X 보안인증체계 실증사업 추진현황(한국도로공사) ·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추진현황(국토지리정보원)
	17:30~	● 폐회

참고 2

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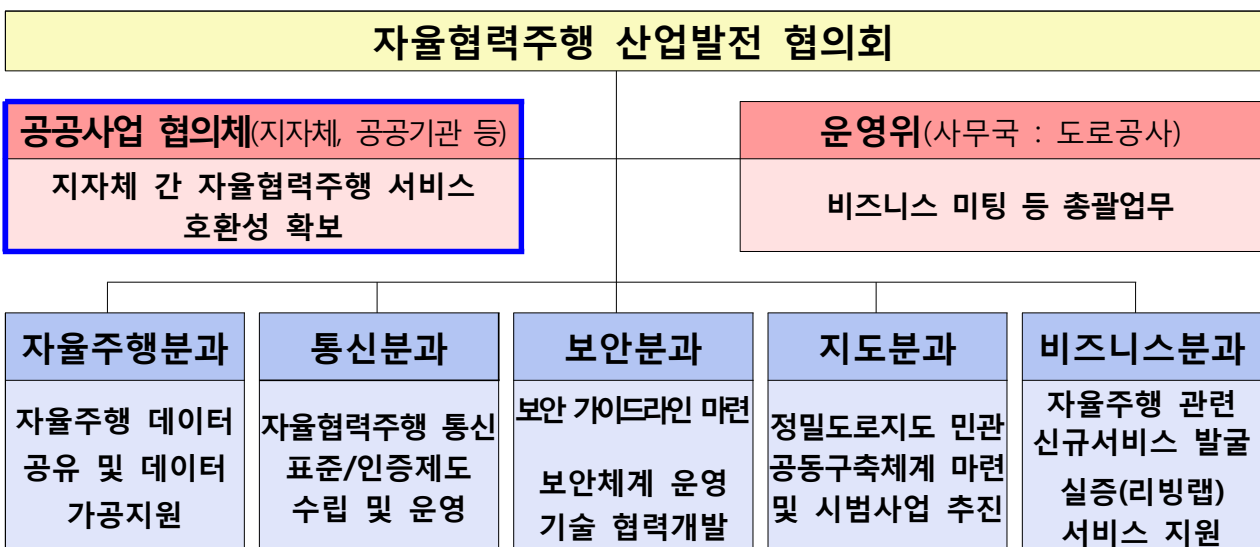
□ 개요

- (현황) 자동차·통신·인프라·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247개 기관이 참여하여,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이슈와 정책방향 논의 중
- (기대효과) 자율협력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·중·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

□ 주요활동 및 성과

- (비즈니스 미팅) 대기업(8개社)·중소기업(75개社)간 기술교류 미팅(8회)을 개최하여 10여건 이상의 협력 추진 유도
- (상호호환시험) 스마트인프라 장비의 유효성 검증(3회, 66개 기관 참여)을 통해 제품개발을 촉진하고, 美 인증기관과 상호인증 추진
- 참여기업 컨설팅, 해외진출 판로지원,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, R&D 과제·지원사업 발굴 등도 추진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기여

□ 구성 및 조직



※ 자율협력주행 서비스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협의체 신설

【 C-ITS 개념도 】



□ C-ITS 개념(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

- (도입목적) 자율주행차의 센서기능을 보완*하고 자율주행 성능 극대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과 통신기술 융합

* 센서 인식범위 제한, 악천후 시 기능 저하, 대형차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 등

- (구성요소) 차량 단말기, 도로변 기지국, 돌발상황 검지기 등으로 구성
- (주요내용·기능)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하며 위험정보 전파·공유("차량·도로 협력")
 - ☞ 급정거·고장 등 차량상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고·낙하물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전파·공유하여 위험상황 즉각 대응

※ 기존 ITS와의 차이 : 교통정보 수집장치가 설치된 특정 지점만 정보 제공이 가능,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우회경로탐색 등에만 활용

- ☞ 자율주행차 센서 기능의 탐지거리 한계, 악천후·인접 대형차량 등에 의한 제약에도 상황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운행 지원